

# 목포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착수

목포에 7천6백여마리 등록  
부주산 근린공원 약3500㎡  
오는 6월 준공 목표 추진  
“반려동물 문화 개선 전환점”

목포시가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목포에서도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 등을 기르고 있다. 반려견을 살펴보면 목포시에는 7천6백여마리가 등록된 상태다. 이는 60% 가량이 등록된 것으로 추정돼 목포시 전체 반려견은 1만 마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도 커져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성부지는 부주산 근린공원으로 약 3,500㎡(1,060평) 규모다. 시는 지난해 반려동물 동호회 등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역을 현장 답사해 반려동물 놀이터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조성공사에 착공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동물과 양육자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를

구분해 조성하고, 동물전용 놀이시설, 격리장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육자를 위한 의자, 그늘막 등 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양육자와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에 더해 부주산 근린공원의 경관까지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성될 반려동물 놀이터는 목포의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반려동물과 양육자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영암군,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내달 10일까지 신청

영암군은 2월 10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00백만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70-6609)에 상담할 수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 접수

4개 분야 20개 사업...29일까지

신안군은 2021년 농촌진흥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4개 분야 20개 사업에 총 16억 4천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오는 1월 29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에 추진하는 농촌진흥시범사업은 ▷작물환경 분야에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비 재배단지 육성 시범 등 6개 사업 9개소 ▷소득작물 분야에 단

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 16개소 ▷미래농업 분야에 잎수국 생산농가 육성 시범 1개소 ▷농산가공 분야에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 등 3개 사업 4개소 등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신안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 읍·면 지소를 경유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 함평군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30% 감면”

맞춤형 주택 설계 지원

함평군이 민·관 협력을 통해 귀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한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함평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설계비의 30%를 지원한다. 군은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인의 주택 건축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일부터 함평 이외의 지역(도시)에서 군으로 전입한 세대 중 주택 신축자를 대상으로 건축설계비(30%) 지원, 설계 상담, 건축허가 기간 단축, 현장 기술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함평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귀농·귀촌한 세

다. 다만 학생, 군인 등 일시 이주자와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등의 부대비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이번 민·관 협력이 함평으로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등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1천 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주택 신축 비용 등이 여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 민간과 적극 협력해 농촌주택개발사업(최대 2억원 용자·20년 분할상환)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 무안군, 수산물 유통 지원 나섰다

어업인 부담 완화위해 포장재·택배비·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무안군은 올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산물 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포장재, 택배비, 소형저온저장시설(3평~10평)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1월 말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사업공고 실시 후 관내 어촌계, 어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를 겪고 있는 어촌계와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낙지, 갈매, 김 등 무안 특산물의 판매량을 늘리고 어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기자

## 영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149만원 부과

영광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1,810건에 1억6,149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27,000원(1종)~4,500원(5종)이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영광=서희권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